



미국 양적완화 종료 논란과 시사점

김세중 선임연구원

- 4월 10일 미 연준은 3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(FOMC) 의사록을 공개하였으며, 의사록 내용 중 3월 회의에서 2013년 말 양적완화를 종료하자는 주장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미국의 양적완화 종료에 대한 논란이 제기됨.
 - 의사록에 따르면 소수 위원들이 양적완화로 인한 리스크가 양적완화의 혜택보다 크다고 판단하고 있으며, 연준의 국채 및 모기지 채권 매입 프로그램을 2013년 말경 종료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남.
 - 연준은 2012년 9월, 3차 양적완화 정책을 시행하면서 매달 850억 달러 규모의 국채와 모기지 채권을 매입해오고 있음.
 - 양적완화를 종료해야 한다는 의견이 소수 이기는 하지만 지속적으로 양적완화 정책을 지지해 왔던 FOMC 내부에서 양적완화의 종료를 강하게 주장한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, 이에 따라 양적완화 종료에 대한 논란이 제기됨.

- 최근 샌프란시스코와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잇달아 연준의 양적완화 정책 축소 가능성을 제기하는 등 연준 내외에서 양적완화의 종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.
 - 존 윌리엄스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로스앤젤레스에서 가진 연설에서 2013년 여름까지 고용시장이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며, 이에 따라 연준은 2013년 말경 자산매입 프로그램을 종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힘.
 - 제임스 블라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일시적인 고용지표 부진으로 미국의 경제전망이 바뀌지는 않는다고 밝히고 경제에 긍정적인 신호가 많이 감지되기 때문에 연준은 양적완화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밝힘.
 - 사모펀드 블랙록의 최고투자책임자(CIO) 릭 라이더는 연준의 대규모 양적완화 정책으로 인해 시중 금리가 정상수준보다 약 1% 가량 낮은 상황이라고 주장하고 금리가 정상화되면 채권 투자자의 손실이 막대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점진적인 양적완화의 축소를 촉구함.

- 그러나 버냉키 연준 의장은 고용시장 전망이 상당히 개선되기 전까지는 양적완화 정책을 유지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, 3월 고용지표의 부진으로 인해 양적완화 정책 종료에 대한 논란은 악화될 것으로 전망됨.
 - 버냉키 연준 의장은 4월 8일 애틀란타에서 열린 연설에서 미국경제가 2009년 보다 나아지긴 했지만 목표에는 도달하지 못했다고 밝히고 고용시장 전망이 상당히 개선되기 전까지는 양적완화 정책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함.
 - 씨티 그룹의 이코노미스트 나단 쉬츠는 FOMC 의사록의 내용을 볼 때 연준이 자산매입 축소 시점을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3월 고용통계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러한 논의는 다시 위축될 것이라고 전망함.
 - 3월 FOMC 이후 미 노동부가 발표한 3월 실업률은 7.6%로 2008년 12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였으나 신규 일자리 증가가 8만 8,000개에 그치면서 고용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확대됨.

- 한편 IMF의 라가르드 총재는 세계경제가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긴 했지만 실물경제 개선으로 이어지는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현 시점에서 경제부양을 위한 양적완화정책은 계속 유지해야 된다고 주장함.
 - 라가르드 총재는 선진국의 양적완화정책으로 고수익을 추구하는 대규모 자금이동이 발생하면서 개발도상국의 금융시장에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이러한 위험은 잘 통제되고 있다고 설명함.
 - 지난 4월 4일 일본은행은 2년 내 물가 상승률 2% 달성을 목표로 매달 7조 엔 규모의 채권을 매입하고 국채 매입대상도 40년 물까지 확대하는 공격적인 양적완화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으며, 이에 대해서도 라가르드 총재는 지지의사를 표명함.

- 미국의 조기 양적완화 종료는 금융시장 불안 등의 부작용을 낳을 수 있으나 적절한 시기의 출구전략은 이자율 현실화로 보험산업에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음.
 - 미국의 양적완화 종료는 경기회복에 대한 불확실성을 확대시키면서 금융시장 불안을 야기할 수 있지만 경기회복에 대한 자신감의 표현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, 인플레이션 등의 부작용도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.
 - 적절한 시점에서의 점진적인 양적완화 축소 및 종료는 장기적으로 경제안정과 이자율 현실화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금리 장기화를 우려하는 보험산업에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될 수 있음.

(Bloomberg 등)